

한·베트남 FTA 공동 홈페이지 개통

2018-02-05, 내일신문, 이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과 함께 양국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베트남 FTA 공동 홈페이지'(www.koreavietnamfta.org)를 5일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공동 인터넷 홈페이지는 2016년 12월 제1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다양한 무역·투자 정보를 영어와 한국어 베트남어로 제공한다.

한·베트남 FTA 협정문과 양허세율, 원산지 관리와 시장 진출 정보, 최신 뉴스, 기업 애로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베트남 수출 시장, 미국 추격 '가시권'

2018-01-20, 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수출 점유율 8% 돌파... 대미 수출액의 70% 육박



베트남의 '경제도시'로 꼽히는 호치민시 경관. 연합뉴스 DB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출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수년 내에 한국의 2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커질 전망이다. 흑자 규모는 이미 지난해 미국보다 2배가량 많아질 정도로 베트남은 최대 알짜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對) 베트남 수출액은 지난해 477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8%대(8.3%)에 올라섰다.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수출국인 미국의 지난해 수출 점유율 12%(686억 달러)와는 불과 4% 포인트가량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출액 규모로는 미국의 69.7%에 달한다. 2014년만 하더라도 수출 점유율이 3.9%에 불과했던 베트남이 불과 3년 만에 두 배 이상 수치를 끌어올린 것이다.

베트남은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10대 수출국에 10위로 간신히 턱걸이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출액은 71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베트남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 8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면서 2015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제3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15~2016년 우리나라 수출이 고전할 때도 각각 24.2%, 17.5%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무려 46.3% 늘었다.

반면 대미 수출은 2014년 703억 달러를 정점으로 최근 주춤한 모양새다. 베트남 수출이 앞으로도 최근 같은 추세를 꾸준히 보인다면 수출 규모만 놓고 볼 때 앞으로 2~3년 후면 미국에 버금가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서 자리잡은 제이준·휴롬 체험공간 마련 등 '현지화'통했다

2018-02-02, 파이낸셜뉴스, 최영희기자

철저한 소비성향 분석 기반
끊임없는 연구.투자 이어져

국내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을 동남아 판로 개척의 시발점으로 삼고 연이어 진출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에게 베트남이 매력적인 것은 신흥 소비시장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

특히 제이준코스메틱, 휴롬 등 중소기업들이 철저한 소비 성향 파악과 현지화 전략으로 베트남에서 자리 매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업체들이 말하는 베트남 시장 성공의 비결은 '현지화'다.

■제이준코스메틱, 체험형 공간 활용으로 마음잡기 나서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국내 화장품 전문 브랜드 제이준코스메틱은 현지 정착을 목표로 젊은 소비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체험형 소비, 팬덤 문화 등의 트렌드를 적극 활용했다.

제이준코스메틱은 매장의 콘셉트를 체험형 공간으로 꾸민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였다. 매장에서는 제이준코스메틱의 마스크팩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미니어처를 손, 얼굴 등 피부에 얹어보는 등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제이준코스메틱은 베트남에서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르엉쑤언쯔엉' 축구 선수를 전속 모델로 기용했다. 쑤엉 선수는 '2016 베트남 최고 인기 선수 선정'에서 1 위로 꼽힐 만큼 팬층이 두터운 편으로, 그가 가진 현지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며 브랜드 홍보에 나섰다.

제이준코스메틱 관계자는 "제이준코스메틱은 밀레니얼 세대의 문화를 활용한 전략을 펼치며 베트남 현지 모델 발탁 및 체험 존 구성 등을 통해 베트남 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신호탄을 쏘다"며 "향후에는 동남아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선보이는 추가 전략은 물론, 동남아를 넘어선 글로벌 영토 확장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롬.헤지스, 베트남 소비 성향에 맞춰 승부

국내 건강가전 브랜드 휴롬은 '카페인휴롬주스' 매장을 베트남에 오픈하며 베트남 식문화에 맞춘 메뉴를 선보였다.

먼저 파파야, 망고 등 현지에선 이미 친숙한 열대과일을 주재료로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으며, 그와 동시에 '착즙'이라는 브랜드만의 제조 방식을 접목하는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후 휴롬은 수박 빙수, 비타민에이드, 주스 라떼 등 베트남에는 아직 없는 이색 메뉴를 점차적으로 추가하며 건강 음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나갔다. 휴롬은 현재 호치민, 하노이, 다낭 등 총 7개 곳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패션 브랜드 헤지스는 국내 모던 캐주얼 브랜드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하며 상류층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우선 공략했다.

고객의 성향상 저가 제품보다는 명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백화점 내 입점을 우선으로 삼았으며, 판매가를 국내 정가 대비 10% 높게 책정해서 고급화 전략을 전개했다. 또한 최근 상류층 사이에서 '골프웨어룩'이 유행이라는 점을 간파해 복합 매장과 별도의 헤지스 골프 단독 매장을 열어 특정 라인업의 전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시장 공략에 나서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자리를 잡기 위해선 철저한 시장 조사와 함께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대 베트남 교역의 경우 무역 흑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2년 처음으로 연간 흑자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6년에는 200억 달러, 2017년에는 316억 달러로 300억 달러까지 넘어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 179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이상 많은 셈이다. 베트남 시장이 이처럼 급성장한 것은 삼성전자, LG 전자 등 글로벌 제조업체의 전략적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렴한 인건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정책 등 매력적인 요인들로 인해 여러 나라가 베트남을 중국에 이은 차세대 해외 생산기지로 삼고 있다. 여기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2015년 12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양국 교역 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이하 MTI 3 단위 기준)가 92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다.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74억 달러), 무선 통신기기(33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중간재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자본재, 소비재 수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승세가 높은 편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당분간 정보기술(IT) 기기 고사양화 및 전자산업 성장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베트남 수출 증가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트남은 두터운 젊은 인구 층을 바탕으로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생산기지뿐 아니라 소비시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 연구원은 “소비재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2017년에 4%에 불과한 소비재 수출 비중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2020년 베트남과 교역 1000억불 달성 신남방정책

이행 본격화"

2018-02-04, 파이낸셜뉴스, 이보미기자

백운규 산업부장관,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 만나 협력방안 논의
ASEAN잡페어 개최 등 일자리 확대방안 모색 현장 목소리 청취

정부가 '新(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과 교역, 투자, 산업,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오는 2020년 베트남과 교역목표를 1000억달러'로 잡았다. 이는 2020년 아세안 교역 목표 절반이다. 정부는 베트남과 상생·호혜성에 기초한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 심화시키고, 베트남을 기점으로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이 지난 2~3일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쩐 뚜엥 아잉)과 산업공동위원회,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교역·투자, 산업,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대상국 중 하나인 베트남과 경제 협력 모델을 발굴 심화하고, 신남방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데 역점을두고 열렸다.

백 장관은 2일(현지시간) 쩐 뚜엥 아잉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산업 공동발전 및 기업간 글로벌 밸류 체인(GVC) 강화·우리 에너지 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및 이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한-베 교역 1000억달러 추진(201년 11월 양국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위한 상호 호혜적 교역·투자환경 조성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정상순방 계기 합의한 한-베 교역 1000억달러 가속화를 위한 무역분과 구성 합의, 베트남 무역전문가 양성 및 무역진흥기관간 협력 등 교역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코리아플러스-베트남플러스(Korea Plus - VietNam Plus) 설립', '한-베 FTA 공동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협력 확대 기반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코리아플러스-베트남플러스'는 앞으로 양국 교역·투자 활성화와 기업 투자·진출 관련 애로해소 등을 위한 양국 정부내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부 아주통상과 및 베트남 산업무역부 아시아·아프리카 시장국 내에 전담인력을 두고 정책연구·기업지원·정보분석·기업의 대 정부 활동 지원 등 수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리아플러스는 양국 교역·투자 활성화와 기업 투자·진출 관련 애로해소 등을 위한 양국 정부내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5일부터 운영 예정인 '한-베 FTA 공동 홈페이지'는 양국간 무역·투자활동에 유용한 정보 제공 및 FTA 활용 애로해소 등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서 활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베트남 장관은 한-베트남 FTA 2주년을 맞아 '제2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2일(현지시간) 산업공동위에 이어 개최했다. 양국은 한-베트남 FTA가

양국의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지난해 양국간 교역 규모는 639억달러로 발효 전인 2014년보다 111% 증가했다.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서는 한-베 양국간 수입규제 사례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양국 모두 제3국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통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 투자국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상품을 넘어 투자 등 분야에서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베트남에서 'ASEAN Job Fair' 열고 해외 취업·창업과 연계한 미래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한 해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 청년들은 해외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 홍보를 통해 해외 취업·창업 희망자가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해외 현지창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등 기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백 장관은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출범식 및 해외취업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아세안 KOCHAM 회장단들을 격려하고,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과 아세안 기업들이 함께 모이는 한-아세안 글로벌 직업박람회(Job Fair)를 정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빅 데이터, AI, 클라우드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이자 제조업과 연계되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 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이를 해외 취업과 적극 연계할 계획인 바, 아세안 각국의 산업, 기업들에 적합한 취업·창업 인재 양성에 연합회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이행하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 장관은 '한-베 산업협력플라자' 및 산업부장관,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과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백 장관의 베트남 방문 성과를 기초로 신남방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해 11월 APEC 계기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20년 교역 10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상생·호혜에 기초한 산업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양국이 논의한 과제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양국 정부 공동으로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기업들의 각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